

무궁화 위성 3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유난히도 무덥게 느껴졌던 여름이 어느덧 가버리고 아침에는 꽤 쌀쌀한 가운데 초겨울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과 9월에는 우리별 3호와 무궁화 3호의 성공적인 발사가 있었고,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가 곧 발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위성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값진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건데 '83년말 국내 모그룹의 권유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88년 올림픽 때 사용할 목적으로 인공 위성을 띄우겠다는 제안서를 들고 청와대, 과기처, 경제기획원 및 체신부(現 정보통신부의 전신) 등 여러 곳을 뛰어다니며 동분서주 하다가, 그 이듬해 5월 아직 준비가 안됐으니 '90년대 중반으로 미루기로 했다는 대통령 담화를 TV로 듣고 낙망했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분들의 불굴의 정신과 끊임 없는 노력으로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때 맞추어 훌륭한 위성들을 보유하게 된 것은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위성 시스템의 기획에서 감리, 발사, 운용전반에 걸친 소프트웨어 측면은 물론 위성체의 설계, 조립, 생산 및 부품 국산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기술 축적 등은 과히 눈부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예로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무궁화 3호의 Ka Band 중계기(payload)도 우리 산업체의 힘으로 integration 됐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Ka Band의 LNA, SSPA, Active Phased Array Antenna 등이 MMIC로 구현되어 이미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외환 위기의 어려운 고비를 넘고 빠른속도로 회복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간 무궁화 위성

의 통신용 중계기는 원만히 사용되어 왔으나 방송용 중계기의 사용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법안 제정의 지연, 소비자들의 무준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무궁화 3호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서비스까지도 가능케 되어 인공위성의 활용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지 않고 관련 위성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피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99 Satellite Expo 전시회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위성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적, 제도적 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 해야 되겠고, 그 어느때 보다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소비자에게 실현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되겠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체, 특히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연구회의 역할과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단체로서, 무엇보다도 선진정보화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고민하는 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해 배전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날씨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연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1999년 11월

부회장 이 명 기